

■ 행자부, 2000년 소방업무지침 마련

최근 가스 등 위험물에 의한 화재 및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방법에 규정된 위험물 제조, 저장, 이송 등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점검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2000년 소방업무추진지침을 통해 위험물에 대한 관리를 현실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내 위험물 이동탱크 관리 규정, 위험물 관리요령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우선 현실과 맞지 않아 법 적용이 불확실한 제조소 허가제도, 이동탱크 허가제도 및 주차제도, 위험물 시설 심사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상반기중 제도적인 보완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제조소, 취급소로만 구별해 관리하고 있는 지침을 저장소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이동탱크 운송품목을 하나만으로 허가하는 제도를 몇 개의 유사한 위험물을 하나의 품목으로 묶어 허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위험물 관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

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안전관리의 완화라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무리한 법령을 적용하는 것보다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위험물 제조소 안전관리 지도 강화, 무허가 제조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신규 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기술지도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안전신문(2000.1.17)

■ 우리나라, 세계보험시장 7위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적으로도 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고 시장규모도 상위에 랭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는 국내총생산(GP) 대비 13.87%로 '95년 이후 4년간 연속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한 사람이 내는 1인당 보험료는 1,033달러(117만 4,500원·생명보험 769달러·손해보험 264달러)로 세계 20위 수준이다.

이 결과 전세계 보험시장을 100으로 봤을 때 국내보험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23으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생명보험(2.82%), 손해보험(1.38%)은 각각 세계 6위와 12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사실은 시그마사의 '1998년 세계보험시장의 현황 및 분석'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34.17%)이 전세계 보험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본(21.02%) ▲영국(8.40%) ▲독일(6.34%) ▲프랑스(5.41%) ▲이탈리아(2.69%) 순으로 나타났다.

보장을 중시하는 생보시장의 비중은 일본이 미국을 1.92% 포인트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 보험매일(2000.1.11)

■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정안전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석유화학 및 가스업계 사고예방을 위한 DB시스템인 공정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 개발 7개월만에 완성되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스템진단처는 가스안전경영 종합체계에 맞도록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구성된 공정안전정보관리시스템(SIMS, Safety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을 개발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건국대 공정시스템 연구실과의 공동작업으로 완성된 SIMS는 SMS(Safety Management System)를 기본모델로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공정안전자료, 안전성 평가,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위한 메뉴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사업장 현실에 맞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비롯, 클라이언트 서버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철저한 보안기능에 의해 중요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가스안전공사는 설명했다.

SIMS는 특히 이미 문서화된 안전성향상계획서의 공정안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할 수

있으며 정량적위험성평가(QRA, Quality Risk Analysis) 및 위험도에 의한 검사기법 등의 선진기법 적용을 위한 데이터뱅크로의 이용도 가능토록 구성돼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SIMS를 기반으로 업체별 주문생산을 통해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안전·환경분야의 전문 IT(기술정보, Information Technology) 업체와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석정 가스안전공사 시스템부장은 "21일부터 소개에 들어가는 등 SIMS의 본격적인 보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개발은 국내 석유화학업체 뿐 아니라 가스관련 업체의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안전신문(2000.1.10)

■ 자연재해보험, "내년 시범실시"

홍수와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연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월 27일 국립방재연구소와 보험개발원에 위탁 연구중인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내년부터 주택 등 일부시설에 시험 적용한 뒤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안에 태풍, 가뭄, 지진 등을 포함한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의 자연재해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일정 비율씩 분담하고 피해보상은 자연재해시 정부가 무상으

로 지원하던 보상액 수준의 정액 보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보험대상 사유시설의 종류는 통계자료 미비로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입형태도 의무, 임의 2가지와 절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 금융보험통신(2000.1.28)

■ 손보 4사, 세계 200대 그룹 진입

삼성·현대·LG·동양화재가 세계 200대 손보사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사는 보유보험료 기준 FY'98 세계 200대 손보사 순위에서 한국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13억\$)가 54위에 랭크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해상이 91위(7억4천만\$)에, LG 108위(6억1천만\$), 동양화재 131위(4억5천만\$)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선정에서 국내사는 환율 및 보험료 감소 등으로 인해 다소 순위가 떨어졌다.

미국 Zurich Group이 보유보험료 137억\$을 기록,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영국 RSA, 미국 American Ins Group, 일본 Tokyo Marine 등의 순이다.

일본 도쿄마린의 경우 FY'97 세계 1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

한편, S&P 신용평가에서 삼성화재는 A, 현대해상 Bpi, LG화재 BBpi, 동양화재 Bpi 등급을 받았다.

— 금융보험통신(2000.2.7)

■ 미국화학공학회(AICHE) 춘계 총회개최

미국화학공학회(AICHE) 춘계총회가 2000년 3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Atlanta GA) 힐튼타워(Hilton Atlanta and Tower)에서 개최된다. 이 총회는 “21세기의 환경개선”, “제34차 손실방지심포지엄” 등 최첨단 주제로 『15개의 토픽 컨퍼런스』, 『12개의 단기 코스』, 『5개의 개별지도』, 신상품 및 서비스 전시회인 『쇼케스 2000』 및 『축제』 등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정보는 AICHE 홈페이지 <http://www.aiche.org>에서 얻을 수 있다.

■ LPC 구조조정

보험기관에서 설립하여 운영해오던 영국의 유서 깊은 민간방재기관 LPC(Loss Prevention Council)가 수차에 걸친 변화 끝에 금년 1월 중순, 마침내 영국 환경부 산하 조사연구 기관인 BRE(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에 매각되었다. 이번의 구조조정에서 LPC 산하에 있던 3개의 기관 중 시험소인 LABS(LPC Laboratories) 및 인증기관인 LPCB(Loss Prevention Certification Board)는 LPC와 함께 매각되고 FPA(Fire Protection Association)만이 독립기관으로서 보험기관에서 계속 운영하게 되었다. ☉